유류세 인하 첫날…기름값 내린 거 맞아?

광주·전남 보통휘발유 ℓ당 평균 14.16원 하락 그쳐
운전자들 100% 인하분 반영 직영주유소 찾아 삼만리
"주유소 재고량 따라 반영 시점 천차만별" 불만 높아

"아직 안 떨어졌네요. 제 차도 곧 빨간불 들어오게 생겼는데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얼른 기름 값이 떨어지길…."

유류세 인하에 돌입한 6일 아침 일찍부터 기름 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으려는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조금이라도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며칠 동안 기름을 넣지 않고 기다리는가 하면, 실제 주유소 유가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싼 기름 값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날 동구의 한 주유소에서 만난 김모(여·33)씨는 "차량계기판 주유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기름 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며 "3일전부터 차량운행을 멈추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들은 당장 세율 인하분을 100% 가격에 반영해 기름 값을 인하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는 달랐다. 전날까지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석유제품의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세율 인하분 가격 반영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북구 중흥동 자영주유소 A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99원으로 어제와 변동이 없었던 반면, 동림동 직영주유소인 B주유소는 1531원이었다. ℓ당 무려 168원의 차이가 났다. 중형승용차가 최대 70ℓ 주유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1만1760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 때문에 B주유소는 바쁜 출근시간에도 불구, 주유를 위해 3~4대의 차량이 줄을 서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직영주유소가 세율 인하분을 반영해 기름 값이 떨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평균 기름 값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의 실시간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주유소들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668.94원으로 전날보다 14.16원 떨어졌고, 자동차용 경유도 1470.73원으로 하루 만에 15.57원 하락했다. 전남도 휘발유 가격은 14.16원 내린 1668.94원, 경유는 6.81원 떨어진 1673.45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름 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던 운전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세율 인하분을 반영해 인하에 들어간 직영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 등은 여전히 기름 값 인하에 들어가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경유차 운전자 김모(46)씨는 "며칠을 기다리다가 주유소를 갔는데 전날과 큰 차이가 없어 발길을 돌렸다"며 "그나마 가격을 내린 주유소를 찾아가 가격인하가 이뤄질때까지 버틸 최소한의 기름만 넣고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전체 주유소의 80~9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가 재고량에 따라 세율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시점이 천차만별인 것에 불만과 불신의 반응이었다.

광주·전남지역 커뮤니티인 네이버 '맘스팡' 카페에는 "올리는 건 순식간이고 내리는 건 심사숙고한다", "재고소진 후 내린다고 하는데, 올릴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올리더니 내릴 때는 거북이가 따로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날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낮추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89.62 (+12.70)	금리 (국고채 3년)	1.98 (0.00)
↓ 코스닥	691.55 (-0.39)	↑ 환율 (USD)	1123.80 (+0.30)

효성첨단소재 베트남 광남성에 투자

땀탕공단 내 제2공장에 1700억원 생산설비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 점유율 확대 나서

효성첨단소재㈜가 베트남 광남성에 신규 생산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타이어코드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효성첨단소재㈜는 베트남 중부 광남성 땀탕공단 내 제2공장 부지에 1억5200만달러 (한화 약 1700억원) 규모의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타이어코드 생산설비를 구축한다. 우선, 초기 자본금 3000만 달러를 연내 투자한다는 게 효성첨단소재 계획이다.

효성은 지속적으로 베트남 지역에 투자해왔다.

지난 2007년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 인근의 연짝 공단에 베트남·동나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하는가 하면, 올해에는 베트남 남부에도 생산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진행중이다.

효성 베트남·동나이 법인의 경우 지난해 약 1조 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베트남 남부 바리아붕따우성에 설립한 생산법인에는 13억 달러를 투자해 폴리프로필렌(PP) 공장과 이를 위한 탈수소화 공정(DH) 시설, LGP 가스 저장탱크 건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주행성을 보강하기 위해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보강재로 효성첨단소재㈜ 타이어코드는 현재 전 세계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시장에서 약 45%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세월호와 5·18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보해양조, 조선대 '기적의 계단' 리모델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해 조선대학교에 설치했던 '기억의 계단'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11월 조선대 중앙도서관과 국제관 사이에 '기억의 계단'을 설치한 후 기억의 계단을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을 줄곧 받아왔다. '기억의 계단'은 세월호와 광주민주화운동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이다.

보해양조는 학생들과 지역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숭고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작품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억의 계단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기획했던 광주대학교 전경훈 학생과 함께 새로운 기억의 계단을 만들었다. 또한 '생각하는 손가락'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캘리그라퍼 이미화 작가가 기억의 계단에 공감해서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의 계단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늘렸다. 가로 10.5m, 세로 2.2m로 지난해 작품보다 두 배 이상 커졌다. 작품 오른쪽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푸른색 배가 있고 그 안에는 희생자들의 못 다 이룬 꿈을 나타내는 커다란 별이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왼쪽에는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어여쁜 우리 누나',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을 뜻하는 '용감했던 우리 오빠',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학생들을 뜻하는 '꿈 많던 내 동생'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수은 홍보팀장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이 기억의 계단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보해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시도민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전남 농특산물 부산 홍보전 진행

농협 전남본부 마린시티 김장 한마당 축제 참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6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인근에서 열린 '마린시티 김장 한마당 축제'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 과실공동브랜드 '상큼애'를 비롯해 해남 절임배추와 고구마, 신안 천일염, 마늘, 함평 무화과 등 지역 농특산물을 부산시민들에게 홍보했다.

축제가 열린 마린시티는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아 전남 김장채소들에 대한 예약주문 및 판매문의가 이어졌으며, 절임배추는 이미 1000박스 이상 예약판매가 성사됐다. 홍보행사로 장기적인 고객확보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박태선 본부장은 "부산시민들의 전남 농특산물의 호응이 일회적인 효과로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전남농협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부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광주은행, 대학생·사회초년생 'Y통장·Y적금' 출시

만 18세~30세 가입…수수료 면제·금리 우대 등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유스(youth)고객 전용 상품인 'Y통장·Y적금'을 오는 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Y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18세부터 만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조건 없이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와 당행 및 GS25편의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통화(USD,JPY,EUR) 환전 시 50% 환율이 우대된다.

함께 출시되는 'Y적금'은 유스고객의 첫 목돈마련 플랜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18세부터 만35세 고객이면 가입 가능하다. 이 적금은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해 1년제와 2년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총 2회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Y적금'의 기본금리는 1년제 연 2.0%, 2년제 연 2.2%이다. 우대금리는 ▲'Y통장'을 보유하거나 비대면채널을 통한 가입 시 연 0.2%포인트 ▲목표금액 달성 시 연 0.2%포인트 ▲당행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0.2%포인트 ▲출시기념 이벤트 우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해 최대 1.5%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2년제 가입 시 최고 연 3.7%의 금리가 제공된다.

이와함께 내년 2월 28일까지 출시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Y통장' 신규가입 고객 중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거나, 자동화기기나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선착순 5천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 ▲'Y적금' 가입고객에 대하여 출시기념 이벤트 우대금리 연 0.9%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Y통장·Y적금은 유스고객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꿈을 응원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및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및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삼성 상업용 세탁기·건조기 시장 본격 진출

'B2B 전용' 제품 출시

삼성전자가 세탁기, 건조기의 'B2B 전용' 신제품을 출시하고 상업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상업용 세탁기·건조기는 셀프 빨래방과 같은 세탁 전문업소 외에도 호텔, 리조트, 기숙사, 병원, 군부대 등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우선 일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출시하고, 향후 세탁 전문업소용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한 'B2B 세탁기'는 17㎏ 대용량에 강화된 모터를 적용해 38분 만에 세탁이 가능한 제품으로, 세제를 녹여 만든 거품을 빨랫감 사이사이 침투시켜 세탁을 돕는 '버블테크' 등 기존 가정용 세탁기 내 기술이 적용됐다.

11㎏ 용량의 'B2B 건조기'는 45분 이내에 건조를 가능하게 한 제품으로, 사업장 환경에 따라 'B2B 세탁기'와 함께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 'B2B 세탁기·건조기'는 동전을 넣어 작동하는 코인기를 결합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삼성페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